

행복한 7반

우리를 생각

우리를 마음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 7반

##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 7반

- |                |       |
|----------------|-------|
| 가을의 변화         | • 가주원 |
| 추석에 재밌었던 일     | • 고도영 |
| 추석 음식은 맛있어     | • 고현민 |
| 왜 왔지?          | • 권시윤 |
| 즐거운 추석         | • 김대한 |
| 행복한 추석         | • 김민지 |
| 가을 소풍          | • 김예린 |
| 재미있는 마시안 갯벌 체험 | • 김주은 |
| 금 같은 학교        | • 문태경 |
| 여름이 된 추석       | • 박초아 |
| 조금 슬픈 추석       | • 염현지 |
| 냄새나는 은행        | • 유다온 |
| 가을 계절          | • 윤현수 |
| 가을 가족 여행       | • 이성빈 |
| 추석 음식          | • 이솔하 |
| 바다             | • 이승아 |
| 추석에 있었던 일      | • 인우진 |
| 친한 친구          | • 임수빈 |
| 스케이트보드         | • 임태우 |
| 추석             | • 임혜윤 |
| 추석             | • 전민성 |
| 재미있었던 낚시, 밤 춥기 | • 전지민 |
| 할머니 댁에서        | • 전하율 |
| 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 • 정민준 |
| 즐거운 수영장        | • 지정빈 |
| 즐거운 한가위        | • 차한결 |
| 추석에 있었던 일      | • 최은서 |
| 즐거운 추석         | • 허서원 |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 7 )반 ( 1 )번

이름

가을 원

## 가을의 변화

아주아주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왔다.

낙엽 빨으며, 놀고, 지독한 은행도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맛있는 과일과 곡  
식도 있고, 얇은 잠바도 입는다.

가을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  
절이다. 과일과 곡식이 아주 많아지고 계  
절 중에 제일 시원하고 우리나라의 두 번  
째 명절 추석도 있고, 우리나라 국경일인  
개천절도 있다.

암으로도 가을이 계속 있으면 좋  
겠다.



## 추석에 재밌었던 일

엄마와 아빠랑 할머니랑 다같이 전을 부쳤다.

그리고 사촌동생 누나도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재밌었다.

그리고 전을 다 부치고 먹었을 때 엄청 맛있었다. 그리고 전을

다먹은 후 사촌 동생이랑 같이 게임을 했다. 재밌었고 신

난당 그리고 오후 다섯 시에 사촌 동생과 같이 편의점에 갔다.

사촌동생은 요가정 아이스크림을 샀고, 나는 과일을 샀다. 그리고

할머니집에 가서 멀었다. 맛있었다. 그 이후 다시은

다시 사촌 동생이랑 브로콜리스타즈를 했다. 그리고 거리를 하다

면서 사촌 동생이랑 같이 한시간 만졌다. 아빠와 아빠는

먼저 집에 갔고, 나는 할머니집에서 사고갈 것이다. 간을

다 잔 후 일어나서 편의점을 갔다. 이번에 지렁이 젤리 2개

풀라포 아이스크림 2개 샀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 가서 지렁이

젤리 2개 먹어보았다. 맛있었다. 그리고 놀다 보니 잘 시간이 되

어졌다. 행복했다. 재밌었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 7 )반 ( 3 )번

이름

고현진

주석 음식은 맛있어

주석 음식은  
언제나 맛있어.

게임 하며 먹을 때도  
주석 음식은 맛있어.

한과도 솔 편도  
모두 다 맛있어.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반 (4)번

이름

권시윤

왜 왔지?



오늘은 추석

할아버지 댁으로 갔다.

왜 왔지?

?



추석은 추수한 놀날  
그걸 기념한다

?



근데 왜 왔지?

추석은 차례를 지낸다  
근데 다음에 지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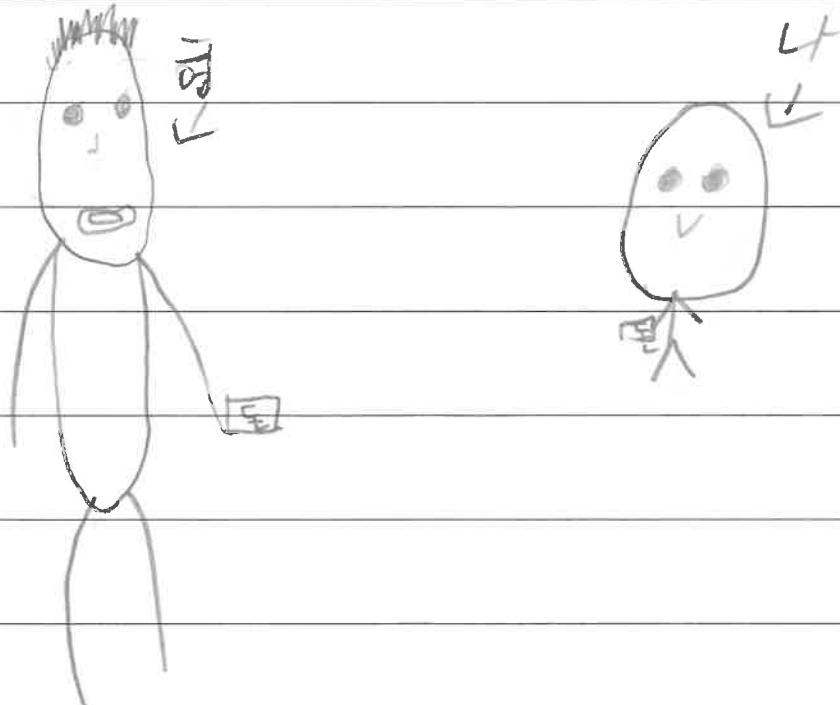
진짜 왜 왔지?

그냥, 왔나보다.



## 즐거운 추석

추석은 아주 즐겁다 왜냐하면 소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돈을 받아서 아주 좋았다. 그리고 추석이 빨리 다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삼촌(아빠 친구) 집을 갔는데 밥도 먹고 맛있는 고기를 먹으니 아주 좋았다. 그리고 열심히 게임을 했다. 나는 추석이 아주 좋다 추석 덕분에 학교를 많이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추석이 좋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반 (6)번

이름

김민지

## 행복한 추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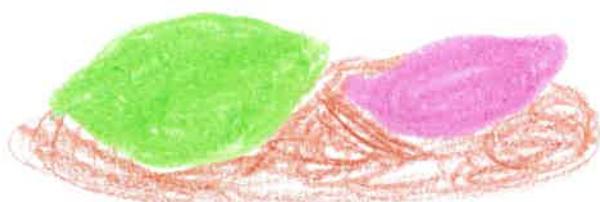


친척들 오순도순 모여  
맛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간식으로 약과와 송편도  
맛나게 먹는 추석

저녁에는  
진수성찬 먹는 추석.

우리의 소중한 추석.  
우리의 행복한 추석.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반 (7)번

이름

김예린

## 가을 소풍 ☆

쌀쌀한 가을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사

공원에 간다.

돗자리를 펴 음식을 올려두고

가족과 식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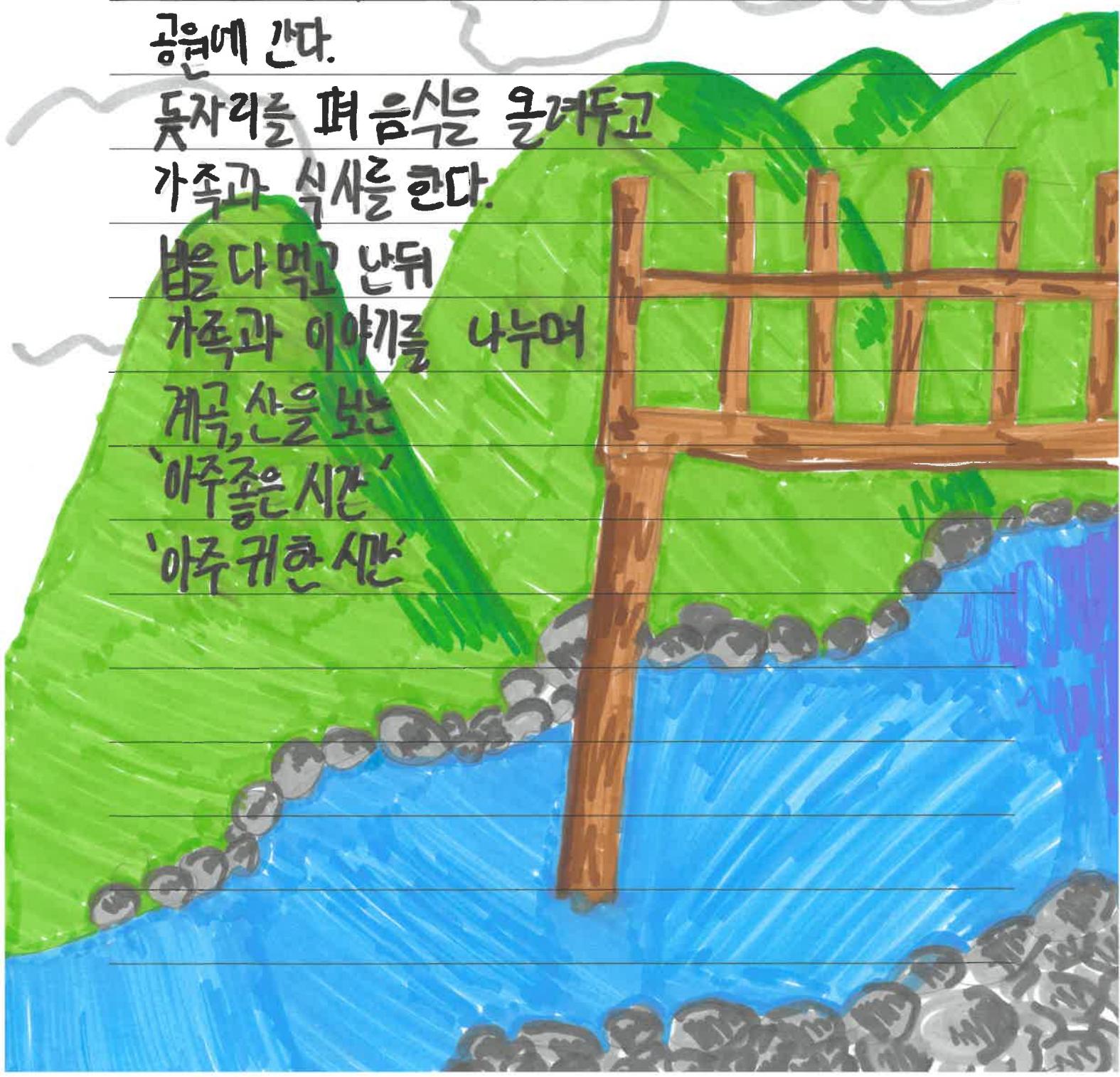
밥을 다 먹고 난 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계곡, 산을 보는

‘아주 좋은 시간’

‘아주 귀한 시간’





## 재미있는 마시안 갯벌 체험

마시안에서 가족과 갯벌 체험을 하였다. 시각은 11시쯤에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갯벌로 들어갔다. 들어가니 기도 있고 그외에도 딱怆 생물들이 많았다. 가서 흙을 짜다, 갯지렁이가 있었다. 성그리웠다 나중에 조개를 많이 찾았다. 아쉽게도 작은 것은 잡으면 안되서 아쉬웠다. 큰 조개들을 많이 잡고 작은 조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또 작은 조개들을 찾았다. 그 옆에 아저씨가 계셨는데 우리 것보다 큰 조개를 3개나 더 잡았다. 매점에서 작은 조개를 넣을 통을 샀다. 그 개 샀다. 딱 들어갔다.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니 왼쪽 말고 오른쪽에 큰 조개가 있었다고 되어있었다. 그리고 신기했던 생물이 밖에 부분이 딱딱하고 안에는 부분에는 말랑거렸는데 이름이 원치궁금했다. 딱딱한 부분을 땅파는 것으로 때리면 딱딱한게 부서지면서 죽었다. 그리고 난 뒤, 생선집에 가서 생선구이와 밥과 누룽지를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집에 와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밖에 부분이 딱딱하고 안에는 말랑한 애는 무엇인지 궁금했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 7 )반 ( 9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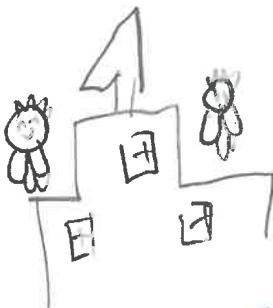
이름

문태경

## 금 같은 학교

학교는 정말 귀한 금과 같다.  
친구도 있고, 수업도 재미있는 금이다.

학교는 정말 감동적인 금이다.  
같이 위로하고, 같이 나가는 감동적인 금 같다



나는 학교라는 금이 좋다.  
학교는 정말 귀하다.

금 같은 학교 함께 다녀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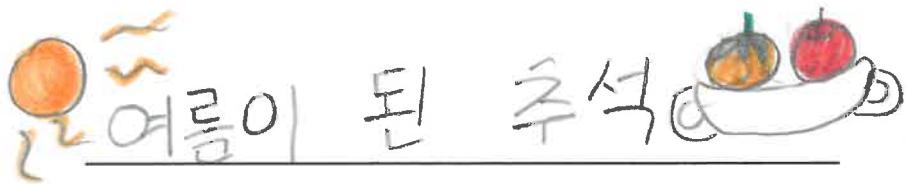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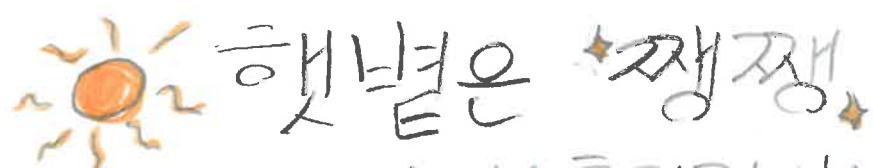
4학년 ( 7 )반 ( 10 )번

이름 초아



추석연후는 바쁘다 바빠

마트에는 사람이 북적북적  
도로에는 차가 북적북적



땀을 뺌냠 흘리면서

열심히 갈길 가네



땀흘리는 달팽이





## 조금 슬픈 추석

이번 추석 때 큰집에 갔다. 큰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먹는거라 음식에 파리들이 붙어서 먹기 불편하였다. 밥을 조금만 먹고 2층에 올라가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촌동생이 오늘도 역시 나에게 함께 놀자고 하였다. 근데 오빠들이 숨박꼭질을 하자고 하여 사촌동생을 함께 놀아주었다. 그래서 혼자 놀아주는 것보다 놀아주는 게 쉽고, 나도 오랜만에 큰집에서 노니 재미있었다.

그리고 저기에 꽃님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많이 약해보이고, 아파보였다. 그래서 언니에게 물어보니 강아지가 벌써 16살이라 다음 추석에는 못 볼 것 같다고 하여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사촌동생과도 놀고, 강아지와도 놀았다.

이제 잘 시간이 되어 가려고하는데 눈에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와, 눈이 붓고 빨개졌다. 너무 아팠지만 큰집에 아무도 안약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약도 먹고, 안약도 넣었다.

재미있긴 했지만, 안약을 아무도 주지 않아서, 좀 섭섭하였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반 (1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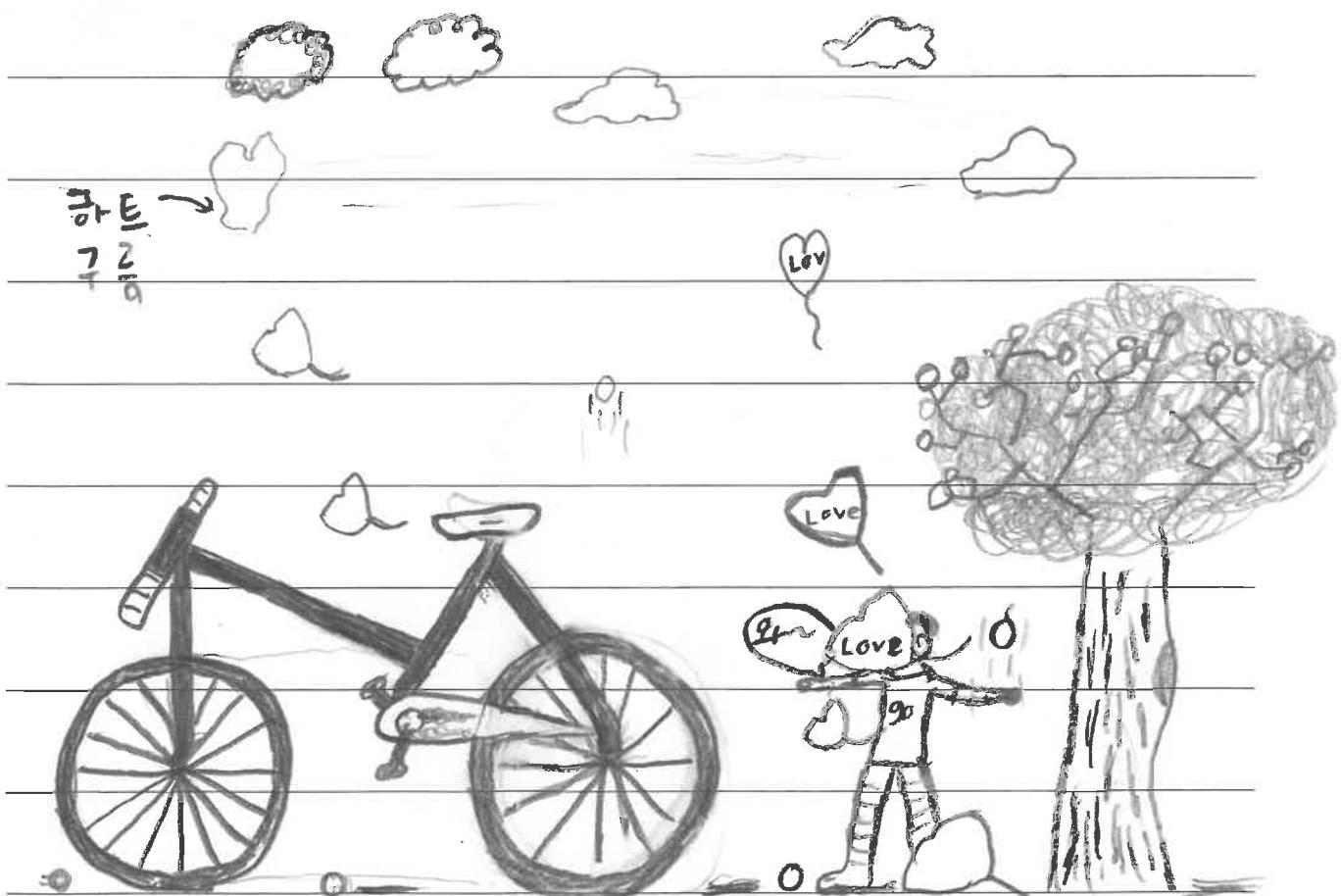
이름 유다운

## 냄새나는 은행

주석에 친구들 여러명과 자전거를 타고 놀았다.

재미 있었지만 단점이 있었다. 무엇이냐면 은행 때문에 자전거에서 냄새가 났다. 그래서 은행

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은행이 없는 곳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놀았다. 주석에 친구들과 은행을 밟고 가니 냄새는 나도 기분은 좋았다. ^^\n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반 (13)번

이름

원현수

가을겨울



가을 겨울이 되면 우리는 가을  
을 향한 단풍이, 단도리, 단감자, 단도자,  
단은 단이다. 저는 가을을 아끼는 계절이다.  
단은 단이다.



## 제1목: 가을 가족 여행

우리가족은 강원도 리조트를 찾았다.

하지만 입장시간은 오후 3시라 아직 물들어가

시장을 들려보았다. 둘러보고 나니 비가 왔다.

우리는 서둘러 차에 탔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

동굴로 갔다. 들어가니 너무 추웠다.

하지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저녁 때 뚝배기불고기를 먹고 야식으로 치킨을

먹고 잤다. 다음 날, 우리 가족은 울릉다리

을 량다리 가았을 산에 갔다. 다 내려올 때

쯤 친가족에게 연락이 왔다.

친가족이 도착해 저녁을 먹고

야식을 나눠 먹고 잤다.

오늘이 집에 가는 날 너무 아쉬워 슬프다.

하지만 재미 있는 가족 여행이였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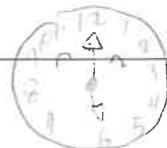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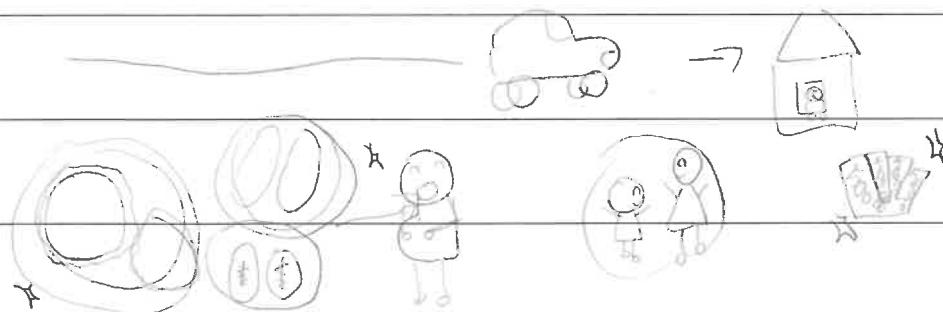
4학년 ( 7 )반 ( 15 )번

이름

이소하

## 주식 음식

주식은 너무 기쁜날이다. 왜냐하면 학교, 학원을 쉬고 초선에  
이모, 할머니, 선촌을 만날수 있다. 그리고 친구랑 같이 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수 있다. 또 선촌과 만나서 놀거나 용돈을 받을수 있다.  
그다음엔 어디가서 놀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수 있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 7 )반 ( 16 )번

이름 이승아

• 바다 • 9

바다에 갔다.

바람이 많이 분다. ⑨⑨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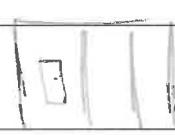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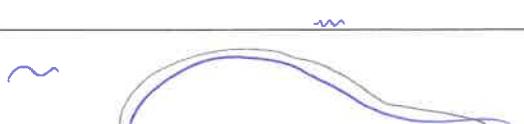
볶가 너무 이쁘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집에 간다.

집에 갈때도 시원했다 ⑨⑨

OO 식당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1)반 (7)번

이름

이수진

추석에 있었던 일

추석에 내 동생들과 차를 타고 고모집에 갔다.

방에 도착해서 아침에 큰 형이 방에 있든

컴퓨터 게임을 했다. 깨하니 너무 재미있었다.

어른들이 추석이란 고운을 주셨다.

동생들과 방에서 친구가 놀다가 모르고 커튼을

부셨다. 속상했지만 친구가 도와주어 잘

해결되었다. 오랫동안 만나서 만족되었다.

신에게 놀고 운동도 받아 추석이 기억에 남을 것이다.



## 친한 친구!!

9월 22일 일요일의 게임에서 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자 친구 환태

전화가 왔다 나랑 오늘 같이 노래?? 귀찮았다 훈데 저 면주에 많이 캔슬 해서

그냥 놀는다고 말을 해 버렸다 그래서 귀찮은 몽이 끌고 춤비를 하려 밤에 놀다

세수하고... 양치하고... 춤비를 즐기고... 옷갈아 입고 춤비를 다했다 그래서

나갈려다 혹시나 해서 카톡을 보냈다 (혹시 춤비 끝나면 얘기 해줘^^)

근대 달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❶ 있다 문자오겠지... 하고

(안아)

소파에 누워 폰을 보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너에디 있어??

내가 카톡보냈는데 (안주) 아 민아 언니 배터리가 떨어져서 (속인) 지금 나갈게 00 (안아)

그래서 나는 민아한테 맞았다 (살살) 그리고 놀다 춤 춤 해서 CU로 갔다

가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상황곡을 했다 꽤 편했다 그리고 라면을

살려고 계산대에 갈아 사장님이 너무 친절 했다 그리고 라면을

먹으려고 라면 먹는대로 갔다 근데 또 상황곡을 했다 너무 꽤 편했다

그리고 헤어질 때가 돼서 헤어졌다. 너무 재미있었다.



## 스케이트보드

축제 때 아빠랑 ~~랑~~ 에서 스케이트보드랑 스케이트보드를 탔다.

스케이트보드는 내 가족들 사이에서 산 것이다

기본이 뛰어난 아빠와 함께 내리막길에

서 넘어지지 않고 잘 탔다. 아빠께서

내가 방향을 잘 맞춘다고 칭찬도 해주셨다.

기본이 좋아다. 다음에도 아빠하고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싶다. 안전하고 재미

있게 또 타고 싶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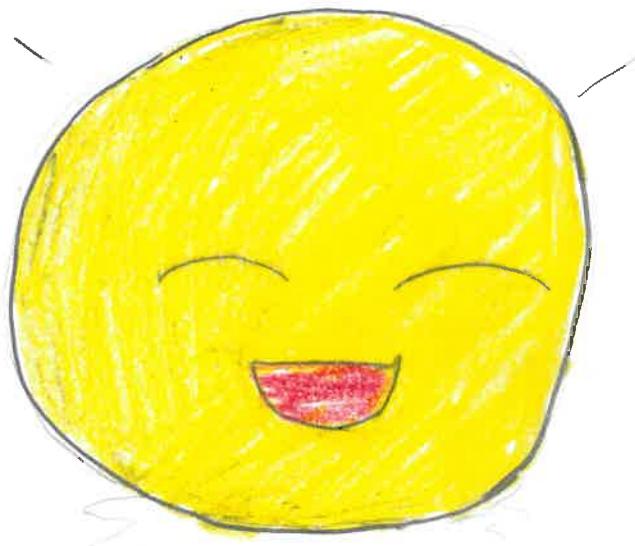
4학년 ( 7 )반 ( 20 )번

이름

임해운

## 추석

둥근 달 뜬 추석  
우리 반겨주네.



온 가족 한자리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음식 나누어 먹으면  
환하게 웃는 둥근 달.

조상들께 차례 드리고  
둥근 달에게 소원 비니  
마을 사람들 소원 하나하나 모여  
둥근 달 마음속에 전달되었다.

감동받은 둥근 달  
마을 환하게 비추네.



## 추석

이번 추석 때 밤만주를 만들러 갔다. 재료가 깨, 양금, 계란 노른자, 연유 등등 있었다. 재밌었다.

그 밤만주를 먹고 형이랑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했다.

그리고 줄넘기도 하고 싶었지만 못가져갔다.

공도 가져가고 싶었지만 못가져갔다 너무 아쉬웠다.

할머니네 집에서 미니사과를 땄다 그 사과로 형이랑

피구를 했다. 내가 던졌더니 미니사과가 깨졌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집에 왔다가 다시

고모네로 갔다. 모두의 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을 했는데

첫 번째 판은 내가 이기고 두 번째 판은 누나가 이겼다.

그리고 쥐라기 월드라는 영화도 봤다.

영화가 끝난 다음 형이랑 브롤스타즈를 또 했다.

, 끝나고 갈비를 먹고 또 게임을 했다 그 다음에

저녁으로 라면을 먹었다. 자고 일어나서 좀

놀다가 집으로 갔다.



## 재미있었던 낚시, 밤 춥기

추석연휴 때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망둥어랑 복어를 잡으러 석포도서해안에 갔다.

거기서 아침 9시 부터 낚시를 했다. 나도 망둥어를 잡으려고 낚시를 했는데 망둥어 1마리를 잡았다. 할머니는 복어 4마리, 망둥어 2마리를 잡았고, 할아버지는 망둥어 6마리, 복어 4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점심에 잡은 물고기를 끓여 먹고, 고기도 먹었다.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저녁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바닷물이 다 빠져서 물고기를 한마리도 못 잡았다.

그리고 추석 때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밤 주우러 밤 산에 갔다.

밤을 많이 주워서 쉬고 있는데 밤 주우러 오신 밤 산 주인 할아버지를 만나고 할아버지 친구 분들도 만났다. 그리고 다시 밤을 춥고 와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3시에 집에 갔다. 밤을 주울 때 너무 힘들었다.

집에 와서 밤에 물을 뿌리고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정리하고 조금은 팔고 나머지는 맛있게 먹고 할아버지 한테 밤을 주었다.



## 할머니 댁에서

축석 때 할머니 댁에 갔다. 가서 가족들이랑 놀았다. 그때 내가 너무 열심히 놀았는지 다음날 코로나처럼 아픈 감기에 걸렸다. 그리고 낮에 너무 아파서 계속 누워 있었다. 못 돌아서 슬픈 나는 내 마음을 달래 줄 친구들이랑 카톡을 하면서 놀았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거실에 다 같이 모여서 잡기자랑을 하였다. 잡기 자랑이 끝난 후 피곤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짐이었다. 내가 잘 때 엄마랑 아빠가 나를 옮겼는지 혀리가 아팠다. 그리고 내가 너무 놀고 싶었는지 본능적으로 나랑 제일 친한 친구랑 놀았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고 좋은 꿈도 꿘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꿈을 꾼 게 아니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학교를 가야 했다. 그래도 축석 을 알차게 보내서 즐거웠다.



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 집으로 출발해 4시간 만에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할머니께서는 일을 가서서  
안계셨고 고모만 계셨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고 10  
분 정도 있다가 식당에 계시는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다른 할머니께도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자 혐아감 나는 먼저 밥을 먹고 이제 식구  
들이 모였다. 어른들끼리 밥을 다 먹고 아이스크림을  
다 같이 먹었다.

다음 날 오후 3시쯤 출발해 저녁 9시 넘어 집에  
도착했다. 빨리 밥을 먹고 잤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 7 )반 ( 25 )번

이름

지정비

## 즐거운 수영장

초석 연휴 때 우리가족은 이전으로 놀러갔다.  
고모차를 타고 테르멘데이라는 수영장을 가다.  
도착해서 첨벙첨벙 수영 했다 미끄럼틀을 타  
다가 미끄럼틀에 박아서 날개뼈가 아팠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동용이라 먼저 탄  
것보다 재미가 없었다. 그래도 수영장  
에서 수영을 한 것은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4학년 (7)반 (26)번

이름

차하경

## 즐거운 한가위

나는 주식연휴부터 배를 타고 친가에 갔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반가웠다. 할아버지가 키우신 포도도 따고

직접 짠 아주신 새우도 맛있게 먹었다. 용돈도

받아, 장난감을 사서 가지고 놀았다. 주말에는 밖에 나가

엄마와 보름달에 소원도 빌었다.

가족들과 함께하여 행복했고 올해는 쭉 달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행복한 7반, 우리들 생각, 우리들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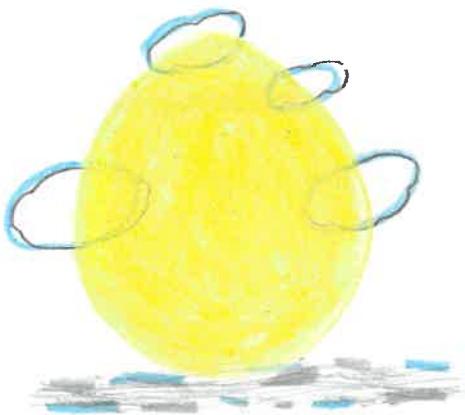
4학년 ( 7 )반 ( 27 )번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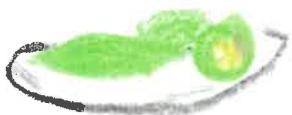
온서

## 추석에 있었던 일

친척들과 모여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고



쫀득쫀득한 송편도  
만들어 먹고



친척들과 같이  
놀이도 했다.



추석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참 아쉽다.



## 즐거운 추석

추석에 할아버지 펜션에 놀러갔다.

펜션에 수영장이 있어 우리형, 나훈형과 재미있게 놀았다. 고모부, 삼촌 등과

맛있는 점심을 먹고 게임을 하였다.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한두 씩고 야자를 했다.

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수영을 또

하였다. 할아버지 펜션 근처 공원에서 형과 배드민턴

도 치고 술래잡기도 했다. 아빠, 남촌, 할아버지도 근처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지만 날씨가 안 좋아 아쉽게

못 잡았다. 펜션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꿀강을 갔다.



우 웃

